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6호 【루계 제23278호】 주체99(2010)년 11월 22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드높이 선군혁명총진군 앞으로!

지난 35년간 190여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 3 950여개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 2만 5 64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오늘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전인민적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 강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몸소 발기하신 때로부터 지난 35년간 전국적으로 2만 5 64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3 950여개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를, 190여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이 과정에 293만 1 400여명의 3대혁명기수들이 배출되였다.

굴지의 유색광물생산기지인 검덕과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는 력사의 땅 청산리에서 첫 봉화가 타오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지난 35년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으며 이 대중운동을 통하여 3대혁명이 근로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하여 주체형의 인간, 선군혁명투사들을 키워내는 인간개조사업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조사업,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금으로부터 35년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몸소 발기하시고 이 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발기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삽시에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는 련이어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 나날에 당시의 룡양광산, 평양화력발전소,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만경대구역 만경대협동농장 등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많은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데 이어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 과학, 보건, 문화예술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이 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라 수많은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고 3대혁명기수대렬이 늘어나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이 운동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75(1986)년 11월 23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라는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이 대중운동에 활력을 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황해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목표들을 높이 세우고 그 실현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1990년대 중엽의 간고하고 어려웠던 시기에도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찾고 이 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毒고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갔다. 이 나날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방직기계공장,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고 전천군상업관리소, 대홍단군발전소건설대를 비롯한 적지 않은 단위들이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선 지난 10년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한계단 높이 끌어올려 진행하도록 그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 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시였다.

주체95(2006)년 2월 제3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각급 당조직들이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리며 근로단체조직들도 적극 발동될데 대하여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이 운동이 전당, 전군, 전민을 선군혁명총진군에로 다시한번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청년대학생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로 파견해주시고 주체97(2008)년 12월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기술혁명을 중시할데 대하여 밝혀주심으로써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강성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찾으시면서 때로는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고 치하도 해주시고 때로는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겠다는 일군들의 결의를 들으시고 고무해주기도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선군혁명총진군의 발구름소리가 온 나라 강산에 더 높이 울리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발걸음을 맞추며 당, 행정경제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이 운동의 사회적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켜왔다. 최근 몇해동안만 보아도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중요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더욱 높아져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선군혁명투사들을 키우기 위한 사상혁명수행에서는 큰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여러가지 교양수단들을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잘 갖추고 적극 리용하여 대국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인민군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체질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의 공업이 CNC화의 높은 단계에로 치달아오르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오고있으며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닭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이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업부문에서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종자혁명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았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문화를 본받아 선군시대에 맞는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을 펼쳐가는 자랑찬 현실은 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는것을 현실로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경희극 《산울림》과 같은 새 세기의 대기념비적걸작들이 훌륭하게 창작완성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인민군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3대혁명기수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오는 나날에 이 운동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가장 곧바른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다.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인민군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날이 갈수록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대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낟알털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

열두삼천리벌의 농촌들에서

열두삼천리벌의 농촌들에서 낟알털기를 와닥닥 다그쳐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열두삼천리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애써 가꾼 낟알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털기 위한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로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며 모든 운반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낟알털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도안의 모든 농촌들에서 이미 거두어들인 곡식을 제때에 털기 위한 전투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낟알털기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현지를 밟아보면서 온 도가 낟알털기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특히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열두삼천리벌의 농장들에 전력과 낟알털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숙천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낟알털기전투에서 매일 많은 실적을 내고있다.

군안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합심하여 낟알털기일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낟알털기전투장을 타고앉아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맡은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낟알털기전투장들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약전, 운정, 금풍농장을 비롯한 이곳 군의 모든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매일 많은 실적을 내며 낟알털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평원군에 자리잡고있는 열두삼천리벌안의 협동농장들의 일군들은 당대표자회정신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한알의 낟알도 허실함이 없이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농장원들과 함께 낟알털기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삼봉, 매전, 대풍협동농장들에서는 로력조직과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낟알털기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운룡, 석교, 운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낟알털기에서 일자리를 푹푹 내고있다.

안주시안의 협동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을걷이시작부터 작전과 지휘를 잘하여 낟알털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남칠, 청송협동농장에서는 낟알털기의 모든 공정들이 치차처럼 맞물리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하고 매일 작업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맡겨진 낟알털기과제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립석, 룡오, 룡반, 인흥협동농장을 비롯한 문덕군안의 협동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면서 낟알털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열두삼천리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낟알털기실적은 날마다 오르고있다.

열두삼천리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낟알털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다음해농사차비도 하나하나 알심있게 진행하여 많은 실적을 내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탄광들에 더 많은 채취설비를

채취기계공업부문에서

채취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각지 탄광들에 더 많은 채취설비들을 보내주기 위하여 증산투쟁의 불길을 높이고있다.

석탄이 많아야 뜻깊은 올해의 대고조전투를 빛나게 결속할수 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채취기계공업지도국의 일군들과 각지 생산자들은 전차와 적재기, 사슬콘베아를 비롯한 채취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동림광산기계공장과 전천착암기공장, 평양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채취설비생산단위들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아가는 가운데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려면 채탄설비가 많아야 합니다.》

채취기계공업지도국의 일군들은 지난 기간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특히 탄광들에 채취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을 중요한 전투목표로 제기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해나가고있다.

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생산단위들에 내려가 대중을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책임적으로 풀어주고있다. 지도국의 일군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해당 단위들에 내려가 유휴자재들을 탐구동원하는 사업에 앞장서고있다.

그들은 유휴자재원천을 찾기 위한 사업조직을 진행한데 따라 탄광들에 내려가 채취설비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자재예비들을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최대한 탐구동원하고있다. 이와 함께 해당 성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여러 단위들에서 찾아낸 유휴자재들을 제때에 생산현장들로 보내도록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철판과 선철을 비롯한 자재예비를 얻어냈으며 생산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증산투쟁을 적극 떠밀어줄수 있었다.

일군들은 협동품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생산조직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탄광설비생산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나가도록 하고있다.

각지 생산단위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채취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동림광산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전차와 적재기, 감속기를 비롯한 채취설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전천착암기공장의 생산자들도 착암기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창조할 일념을 안고 모든 가공품의 질을 높이면서 기대마다 만가동을 걸고있다. 평양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협동품들을 예견성있게 확보하고 가공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여 작업능률을 높여나가고있다.

동림전기공장, 회령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공정간 련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채취설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채취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의속에 생산성과는 날을 따라 확대되고있다.

백산해

국토관리사업 활발

강동군에서

강동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대고조의 승리로 빛내일 마음안고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군의 면모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키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국토관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들모두가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에서는 일군들을 아래단위들에 내려보내여 올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해야 할 대상들을 확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짧은 기간에 다그치기 위한 목표를 단계별로 정확히 세운 다음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하나 해제끼였다.

올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강동군에서는 군소재지를 비롯한 13개소에 2만 9천㎡에 달하는 록지를 조성하고 거리와 마을, 기관, 기업소들과 문화봉사시설들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였다.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군에서는 도로와 철길정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강동군에서는 84.3km에 달하는 도로와 군을 통과하는 수십km에 달하는 철길을 보수정비하였다. 그리고 도로와 철길주변에 수종이 좋은 수십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국토관리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는데 맞게 군에서는 도로와 철길구간들을 보수정리하는 사업을 기관, 기업소들에 맡겨준 다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나무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도 현지에 내려간 군의 책임일군들은 나무를 많이 심어 산림자원을 늘이는것이 인민생활향상에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해당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온갖 정성을 다하도록 이끌었다.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에서 적은 면적에 많은 나무모들을 심고 공업적방법으로 키울수 있는 원형식나무모야외재배장도 만들게 하고 다음해에 심을 수백정보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나무모구뎅이도 예견성있게 파도록 조직사업을 더욱 면밀히 짜고들었다.

도로와 철길보수정리사업에서는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과 태잠축산전문협동농장, 강동기초식품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범을 보이였다.

이번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강동군에서는 수정천과 대리천, 봉화천을 비롯한 군안의 강하천들에 대한 강바닥파기와 장석쌓기를 진행하여 농경지들이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한 대책들을 세웠다.

특파기자 최재남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연구성과로 농업생산을 추동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뜻깊은 올해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아 나라의 농업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며 혁명적인 연구기풍을 세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야 합니다.》

대학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관철에로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대학에서는 농업생산에서 긴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장악하고 제기된 연구과제를 빠른 기간에 완성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그 과정에 좋은 성과들이 마련되였다.

부교수 윤희일동무를 비롯한 농업화학학부 비료학강좌의 교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가치있는 두벌농사방법을 연구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이 연구도입한 논에서의 앞그루감자농사방법은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정보당 높은 소출을 낼수 있는것으로 하여 현실적의의가 큰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교원 리준섭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흙깔이를 질적으로 할수 있는 능률높은 농기계를 제작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대학에서는 원산큰올밤을 육종하고 영양단지에 의한 논벼재배방법과 복합미생물속성발효퇴비를 연구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완성하고 현실에 도입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을 추켜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지금 대학의 전체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 투쟁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할 일념을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신충혁 찍음

정 론

후대들은 잊지 않으리라

대단한 부대!

이것은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근위부대에 주신 영예로운 부름이다.

봄날에 오셨던 그날에는 공사가 한창인 지하막장을 다 돌아보시고 정말 일을 많이 했다고, 이 부대를 《희천돌격대》로 자랑하시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신 우리 장군님, 이번에는 만년대계로 완공된 물길굴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고나서 이 부대는 영웅적이라는 말로도 다 평가할수 없고 그저 《대단한 부대》라고밖에 말할수 없다고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였으니 지금 희천의 영웅적근위병들은 무한한 감격과 희열에 넘쳐있다.

이제 이 부대는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에게서도 《대단한 부대》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참으로 그렇다.

여기에 와보니 현지지도의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멋있다고, 지하궁전같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신것처럼 근위병들의 피땀이 스민 물길굴은 그야말로 크고 견고하고 미끈하다.

수천m의 어느 한구간, 어느 한치도 전혀 흠잡을데 없다.

일매지게 피복된 굴벽을 정히 쓰다듬으니 이제 발전소가 조업하면 이 훌륭한 창조물을 후대들이 볼수 없겠는데 정말 아쉽다고 곱씹어 외우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이 귀전에 쟁쟁하고 병사의 값높은 삶에 대한 생각이 뜨겁게 갈마든다.

희천의 물길굴은 열혈의 근위병들이 애국의 심장으로 암반을 녹이고 의지의 힘으로 굴벽을 다지며 행군해간 그 지울수 없는 발자취이고 그 순결한 넋이며 피땀으로 새긴 영웅서사시이다.

물길굴에는 고요가 깃들었어도 우리는 그들이 헤쳐온 헌신분투의 간고한 길과 그 길에 나래치던 결사관철의 정신을 분명 보고있고 듣고있으며 새기고있다.

이제 여기로는 거센 물줄기가 흐르게 될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만복을 꽃피우는 희천의 전기가 되고 천만가정에 뻗어가는 기쁨의 빛줄기가 될것이니 그 줄기찬 전류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 세대뿐아니라 먼 후날 우리의 자손들도 병사들이 새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소중히 안아보게 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합니다.》

조국은 어떤 삶을 영원히 기억하는가.

흘러간 세월을 뒤돌아볼 때 후회가 없이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아름답게 산 생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인간은 크든작든 자기의 인생길에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산 인간의 흔적은 그 생이 끝나는 순간에 지워지고만다.

자기의 짧고 평범한 생을 조국과 인민, 후손만대와 련결시킨 사람의 생만이 영원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 법이다.

조국은 참된 애국자들이 찍어온 삶의 자욱만큼 전진하고 비약해왔다.

세월은 흘렀어도 서해갑문의 바다밑에는 오늘도 병사들의 자욱이 있고 선군시대에 태여난 강성대국표준거리, 먼 후날에도 손색없을 희한한 공장들과 선경마을들에도 행복의 오곡백과를 위해 밑거름마냥 자신을 묻어간 고귀한 생의 흔적들이 있다.

주체철과 주체비날론, 주체비료의 폭포에도, 대계도의 만년제방과 최첨단돌파의 성과들에도 수많은 유명무명 애국자들의 성실한 피와 땀, 피타는 탐구와 모색의 자취가 비껴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저 하나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인간이 저지른 옳고그른 일들은 죽음과 함께 영영 사라진다고 떠드는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다.

이 극적인 대조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남길수 있는 가장 값높은 생의 자욱이란 바로 조국앞에 남기는 고귀한 창조물이며 그와 더불어 인민이 누리는 락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김정일장군세대,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고 그 대문안에 들어설 첫 세대이다.

거창한 창조의 시대에 살면서 생의 흔적을 영원히 남기게 된 커다란 행복이 우리 세대에 차례졌다.

황금나락 설레이는 풍요한 들은 바로 우리 세대가 토지정리해놓은 사회주의전야이고 대계도에 펼쳐진 천리옥토벌도 바로 우리 세대가 넓힌 조국의 대지이다. 백리사과바다 또한 우리 세대가 애써 심은 나무들에 맺힌 알찬 열매이고 황홀한 선경들과 리상촌들도 우리가 고난의 그 시절부터 하나하나 품들여 일떠세운것들이다.

얼마나 긍지로운 일인가.

이제 여기서 우리 인민이 고난의 나날을 옛말로 이야기할 때, 후대들이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에 우리의 미소가 실린다고 상상해보라.

그래서 이 땅의 창조물들에 바치는 우리 세대의 피와 땀이 그렇듯 진하고 뜨거운것이고 창조의 열정은 끝없이 샘솟는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우리모두의 긍지높은 삶의 자욱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거룩한 력사의 자욱이 있다.

조국과 인민을 한몸에 안으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 수없이 찍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자욱자욱은 위대한 개척자, 위대한 증견자의 자욱으로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숙이도 뜨겁게도 새겨져있다.

금진강물결이 전하는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아직은 발전소가 일떠서기도 전에 건설장을 굽어보시면서 이곳 건설자들의 모습은 말할것도 없고 조약돌 하나도 우리 다같이 소중하게 기억하자고 하신 우리 장군님, 완공된 금진강흥봉청년발전소를 찾아오시여 이 공사장에 힘과 지혜를 깡그리 바친 건설자들모두는 진주보석과 같은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하신 그날의 말씀을 정녕 잊을수 없다.

《진주보석》,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진귀한 보물을 이르던 그 부름으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을 불러주신것이다. 금싸래기보다 더 귀중한 진주보석을 깊고깊은 곳에서 캐내여 쓸고 닦아 빛내주는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훌륭한 우리 인민, 미더운 병사들의 이름을 력사에 길이 새겨주고계신다.

룡성의 선군주철공장을 찾으셨을 때에도 후대들에게 넘겨줄 또 하나의 창조물이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여기에 촬영가들을 보내여 력사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라고 이르시였고 대계도의 거창한 화폭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공중촬영하도록 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당보에 전례없이 크게 소개된 희천의 물길굴사진들을 보면서 근위병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조국청사에 길이 새겨주시려는 어버이장군님의 고결한 사랑의 세계를 읽고있다.

증견자가 없고 보증인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인간의 발자취라도 후세에 전해질수 없다.

어떻게 되여 당의 축산정책을 받들고 수년세월 남모르게 애써온 한 평범한 부부가 문득 집에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닐수 있었고 비날론대경사를 안아온 위훈자들이 어떻게 한날한시에 영웅들로, 수훈자들로 온 나라에 이름떨칠수 있었는가. 돌격대의 작품집들이 어느분에 의하여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였고 영웅적으로 희생된 병사들이 과연 어느분의 고마운 손길에 떠받들려 모교들에 반신상으로 다시 태여날수 있었는가.

시간을 내서라도, 품을 들여서라도 소문없이 큰일을 하는 장한 병사들과 고마운 인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는 우리 장군님, 자신께서 바치시는 천만고생과 하늘같은 업적은 감감 잊으신듯 언제나 병사들과 인민들의 위훈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을 더 높이 내세워주고싶어 마음쓰시는 그 진정앞에서 우리 눈굽을 적신적은 그 몇번이였던가.

정녕 우리 장군님께서는 현재만이 아니라 김일성민족의 후손만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 걸머지시고 모든것을 후손만대의 눈으로 보시고 후손만대의 시점에서 평가하고 보증하신다.

평범한 사람들과 남모르는 애국적소행들이 이처럼 속속들이 기록되여 후세에 전해지는 보람찬 시대가 력사의 그 어느때 있어보았던가.

참으로 우리 장군님의 넓고도 따사로운 그 품은 대고조격전시대 모든 참전자, 위훈자들의 공적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여 후세에 빛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품이다.

밤하늘의 달도 별도 다 모를 그 가슴치는 로고와 헌신은 헌헌히 묻으시고 오늘도 쉬임없이 더 완강하게, 더 정력적으로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발걸음을 온 나라 인민이 무한한 격정에 젖어 따라서고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친 인간은 그의 고심과 정력, 피땀이 스민 만년대계의 창조물과 더불어 영생하게 된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오늘의 격렬한 전투장들에서 우리는 이 고귀한 삶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고있다.

조국과 후손만대에 대한 우리 세대의 남다른 책임감을 안고 굴함없이, 사심없이, 끝없이 바치는 헌신성과 희생성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비상한 속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도, 만년대계의 완전무결한 창조도 나온다.

조국의 앞날과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자신의 빛나는 삶을 위하여 생의 흔적을 뚜렷이 남기자!

시대는 지금 이렇게 부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직 조국의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생의 순간순간을 불길로 태우며 심혼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데 그이의 전사이며 아들딸들인 우리들이 어찌 꿈결에서나마 일신의 안락을 바랄수 있겠는가.

맹세나 다지고 구호나 웨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창조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충실한 창조의 열매를 하루빨리, 한시바삐 거두어들여야 한다.

《산울림》의 황석철이와 같은 인간들, 《산정의 수리개》와 같은 인간들, 희천의 근위병들과 같은 인간들이 조국을 떠받들 때 강성대국 큰집은 후손만대의 행복의 집으로 더 빨리 솟아오르고 번영의 오곡백과는 더 탐스럽게 주렁질것이다.

우리의 모든 창조물들은 세계적인것이 되여야 한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할 때 우리 장군님과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 사람,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리상의 높이에 창조의 높이를 따라세우는 사람이 될수 있다.

소리부터 치고 소문부터 내는것이 급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발전에서 실질적인 은을 내고 인민들이 실지로 그 덕을 볼수 있는것, 사회주의 우리 제도 만세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올수 있는 완벽한 창조물을 내놓는것이 절박하고 중요하다.

건축물을 하나 건설해도 선군시대의 새로운 경지를 펼치며 웅장화려하게 솟아난 국립연극극장과 옥류관료리전문식당처럼 현대적으로, 하나의 발명을 하고 하나의 생산공정을 일떠세워도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와 같이 우리식으로, 만대의 밑천으로 창조해야 한다.

선군혁명의 장엄한 미래를 떠맡은 우리 세대의 이름과 량심을 걸고 세계가 우러러볼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내놓으라.

몇명의 위훈자가 아니라 전체 인민이 주추돌이 되고 밑뿌리가 되여 떠받드는 그 거대한 힘에 의해 솟아오르는것이 강성대국이다.

누구나 조국의 대지를 넓히기 위해 또다시 진펄길을 헤치는 대계도의 영웅들처럼, 백만점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돌진하는 3월5일청년광산의 일군들처럼 조국앞에 생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야 한다.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새로운 힘과 활력에 넘친 향도의 당을 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앞으로!

어머니조국과 후대들은 그대가 남긴 충정의 자욱, 애국의 자욱을 길이 잊지 않으리라.

주 창 선

병사들의 위훈을 빛내여주시며

부강조국건설사에 수놓아진 우리 군인들의 불멸의 위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선군시대에 더욱 빛나고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어가시는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의 갈피마다에는 내 조국땅에 강성대국승리를 억세게 담보해주는 만년대계의 거창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군인들의 위훈을 영원히 빛내여주신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서 건설한 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또 하나의 발전소언제가 군인들에 의하여 일떠선것이 기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이룩한 투쟁성과를 거듭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발전소의 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서 언제를 내리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어느 한 곳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거기에는 아주 묘하게 생긴 바위가 우뚝 솟아있었다.

이윽토록 바위의 모양을 주의깊게 살펴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위가 참 묘하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부대의 지휘관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발전소를 건설할 때 군인들이 이 바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심을 돌려왔기때문에 본래 있던 모양대로 보존할수 있었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휘관의 보고에서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조국의 자연풍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병사들의 열렬한 조국애를 읽으시는듯 아주 잘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발전소언제옆에 있는 큰 자연바위에 《강행군》이라는 글자를 새겨넣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장내에는 세찬 격정의 파도가 설레이였다. 자기들은 바위의 웅장한 자태에서 기기묘묘함이나 헤아렸지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며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해가는 군인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창조의 새 모습을 왜 이 천연바위에 새길 생각을 못했던가.

부대지휘관은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알았습니다라고 힘있게 대답올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그러면 먼 후날 후대들이 그 글발을 보면서 우리 혁명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인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인민군 군인들이 이런 훌륭한 발전소를 일떠세웠다고 감회깊이 추억하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부대지휘관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으로 하여 후덥게 달아올랐다.

《강행군》, 이 글발속에 선군시대와 더불어 우리 군인들의 위훈을 더욱 빛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인가.

우리 군인들을 선군시대의 창조자들로 적극 내세워주시려고 깊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군인건설자들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도 빛나는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는것 아니랴.

림 정 호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토산군 문성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특히 일군들이 《로동신문》에 실리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자료들을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해설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반향자료들을 해설해주었다.

격식없이 진행된 이날의 해설모임에 참가한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받들어갈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신 금 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레바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바이루트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미쉘 쑬레이만각하

나는 레바논독립 67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2010)년 11월 21일 평 양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배천군 물길리당위원회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발휘하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주, 월별로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집행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선동원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새 조국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신 김정숙동지의 투쟁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독보와 해설선전사업을 실효성있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제10작업반에 나간 한 일군은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여 결사옹위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해설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작업반원들은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사상교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농장의 낟알털기실적은 나날이 오르고있다.

로농통신원 안 두 희

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평천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바뀌여진 침대방향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87(1998)년 3월 어느 한 군항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군항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병사들의 군무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침실에도 들리시였다.

아늑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침실을 만족하게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침대를 잘 놓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병실의 침대를 다시 놓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의도를 알수 없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러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병실침대를 지금처럼 머리가 창문쪽에 가게 놓으면 군인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도 벽을 마주하게 되고 잠을 잘 때 창문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조국의 밝아오는 하늘부터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랜 기간 군항을 떠나 날바다에서 생활하는 해병들이 륙지의 침실에 머무르는 짧은 기간에도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싶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사랑에 의하여 침대방향은 바뀌여지게 되였다.

나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전연에 위치하고있는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의 싸움준비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면서 온갖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러다나니 수행일군들은 시종 최대의 긴장감으로 가슴을 조이지 않을수 없었다.

현지시찰이 끝난 후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부디 최전연지대에만은 다시 나가지 말아주실것을 간절히 아뢰였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의 그 마음은 충분히 리해할수 있다고, 그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금 전연초소에서는 나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있습니다, 나는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있는 아들딸들의 군무생활을 료해하고 그들을 고무해주어야 하며 그러자면 전선지대에 찾아가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에는 뜨거운것이 가득차올랐다.

병사사진첩에 깃든 은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여 교양실에서 병사사진첩을 보아주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군인들이 군기앞에서 찍은 영예사진들과 동무들과 함께 다정히 찍은 사진들을 한장한장 보아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병사사진첩이 좋다고, 내가 군인들에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병사사진첩을 잘 만들어놓았다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군인들이 병사생활을 영원히 추억할수 있게 기념사진을 많이 찍어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때에도 사진제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정녕 그이는 우리 군인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정 순 학

인민에 대한 다심한 어버이사랑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그이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은 사람들이 즐겨마시는 시원한 랭천사이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새 세기 첫해인 주체90(2001)년 7월 8일이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강산에 더욱 넘쳐나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소문도 없이 경련애국사이다공장을 찾으시였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고결한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공장에 들어서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뵈옵는 순간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한 일군으로부터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관심속에 생겨난 공장의 연혁과 랭천사이다의 유래에 대하여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어 로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주입타전기를 보아주시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설비를 갱신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사이다조작공정현장에 들리시여서는 사이다생산과정에 나타나군 하는 도중손실량까지 료해하시며 생산을 늘이는 문제에 깊이 마음쓰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며 생산활성화를 위해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고 사이다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은정어린 가르치심을 주시였을뿐아니라 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취해주시였다.

랭천사이다는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료인것만큼 여러가지 과일원료를 리용하여 특색있게 만들며 좋은 설비를 들여다 공장도 크게 확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우리 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추억을 안으시고 인민들에게 공급할 각종 사이다생산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는 절세의 위인의 고귀한 뜻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일군들의 심장은 크나큰 격정으로 맥박치고있었다.

돌이켜보면 반만년민족사의 대국상으로 산천초목도 몸부림치던 그해 7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수대언덕과 평양시내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자신보다 먼저 우리 인민을 생각하시며 몸소 봉사기관들에서 청량음료매대를 내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많은 음료매대들이 설치되였지만 사이다를 비롯한 청량음료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바로 이 문제를 언제나 마음에 두고계신 경애하는 그이이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일곱해가 되는 날 몸소 경련애국사이다공장을 찾으시여 인민들에게 공급할 사이다생산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것 아니랴.

잊지 못할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 제품창고에 들리시여 친히 사이다 한병을 드시고 이 상표가 자신께서 보아주신 상표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어느 한 기회에 창작가들이 만든 사이다상표도안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상표를 여러가지 색갈을 써서 만들면 제품의 성격에도 잘 맞지 않고 상표인쇄에서도 실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한가지 색갈을 쓰면서도 실리가 보장된 훌륭한 상표도안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상표가 시원한 맛이 나게 잘 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맑은 하늘색바탕의 중심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감을 주는 눈송이를 두드러지게 새겨넣은 새 상표도안!

진정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가시는 헌신의 그 모든 낮과 밤은 인민을 위한 사색과 실천의 련속이 아니던가.

숭엄한 격정속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병생산을 위한 공장건설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세계적인 병생산추세도 알려주시였다.

어느덧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하지만 앞으로 공장이 인민을 위하여 일을 더 많이 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년간 물동량에 맞게 륜전기재들을 그쯘히 갖추는것을 비롯하여 공장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서야 이곳을 떠나시였다.

참으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위대한 사랑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은 경련애국사이다공장만이 아닌 경제활성화로 들끓는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대혁신, 대비약에로 끝없이 추동하는 위대한 원동력이다.

본사기자 계 성 남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지방의 원료원천을 리용하여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맹 산 군 에 서

군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립장과 일본새

올해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맹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여러 지방산업공장들을 개건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산간지대의 하나인 맹산군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소비품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면서 그 덕을 크게 보고있는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것이다.

군의 자랑찬 현실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일본새로 당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올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군의 일군들은 년초부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전투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내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개건에서 찾은 군의 책임일군들은 현장들을 빠짐없이 밟아보고 여러 공장의 일군들과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기술개건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고 군내 기술력량을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기술개건목표를 짧은 기간안에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현대화의 본보기단위로 정한 식료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장들의 기술개건안이 발표되였을 때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있는것보다 부족한것이 더 많은 산골군에서 그렇듯 방대한 기술개건목표를 수행할수 있겠는가, 지금 있는 생산공정들을 만부하로 돌리기만 해도 대단하다는것이 이들의 견해였다.

—시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혁신적안목으로 방도를 찾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면 못해낼 일이 없다.

얼마후에 진행된 협의회에서 군당책임일군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의 일군들은 잡도리를 든든히 하고 기술개건전투에 달라붙었다.

군의 일군들은 목표를 높이 세운데 그치지 않고 모든 공장들에서 하나의 생산공정을 개건해도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잘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식료공장의 현대화를 훌륭히 실현한것이 그 한 실례이다.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장절임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이미 있던 장생산공정과 당과류생산공정을 새롭게 개건하는 사업을 내밀었다. 공장의 생산공정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공정을 꾸리자면 많은 일감을 해제껴야 하였다.

그러나 군일군들은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생산공정을 개건할바에는 아예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자는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제품의 질이 올라가고 생산이 장성하게 되는것은 뻔한 일이였지만 과연 군자체의 힘으로 이런 높은 목표를 수행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떠날줄 몰랐다.

그러나 과학적인 타산과 론리적인 주장이 안받침된 군책임일군의 설득력있는 이야기는 일군들에게 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후날에야 군의 일군들은 장생산공정의 CNC화를 위하여 군책임일군이 전문부문의 기술자들과 함께 밤을 밝히면서 과학기술서적을 탐독하고 군안의 기술력량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과학적인 타산을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군책임일군들의 조직사업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필요한 설비들이 제때에 해결되고 어렵게만 생각되던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풀리여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장생산공정의 CNC화가 훌륭히 실현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무엇을 하나 설계하여도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늘 사색을 깊이 하며 아글타글 애쓰는 군책임일군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공장일군들은 자기 단위를 더 잘 꾸려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종이공장의 일군들은 종이생산공정을 만부하로 돌려 학생들에게 학습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위생종이생산공정을 새로 꾸릴 결심을 하고 대중을 발동하였다. 기술적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애를 먹고있을 때에도 이곳 일군들은 주저앉지 않고 로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밀고나가 인민들에게 학습장과 포장지뿐아니라 위생종이도 생산보장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의 관리운영을 직접 맡고있는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군의 일군들은 실력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실무적으로 잘 준비된 일군들을 공장들에 보내여 기업관리를 책임지고 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산업공장들에서 기업관리를 보다 깐지게 하면서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게 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지방산업공장들을 잘 꾸려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있는 맹산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투쟁기풍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군조선청년의 영웅적기상을 과시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군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투적기백과 정열에 넘친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앞장에서 기세를 올리고 혁신의 불길을 일으켜야 온 나라가 들끓고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10월의 대축전을 계기로 비상히 앙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한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사상교양사업계획에 따라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청년들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한 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진행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 대한 연구발표모임과 당대표자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위한 대진군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한 내용의 강연과 학습, 해설모임은 청년들의 피끓는 심장마다에 장군님의 전설적인 초강도강행군길에 발걸음을 따라세울 때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청년전위》를 비롯한 청소년출판물들에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갈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사설, 론설, 정론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청년들의 투쟁내용을 적극 싣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김철과 성강,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희천발전소, 대계도간석지 청년들의 투쟁과 위훈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모든 청년들이 이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따라배워 자기앞에 맡겨진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무조건 끝까지 수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의 주공전선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청년돌격대운동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청년동맹일군들이 화선식정치사업일지를 빠짐없이 갖추고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전투장들에 들어가 능란한 화선식선동을 벌리면서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애국적,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히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청년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수많은 청년동맹일군들과 근로청년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희천발전소건설장 그리고 협동농장, 탄광들에 탄원하고 수천명의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제일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과 외진 초소들에 적극 진출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사실은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힘있는 선전선동사업이 어떤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을 키워내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방문기 현대화의 기쁨 넘치는 일터

식 료 공 장 을 찾 아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화의 본보기단위로 자랑높은 맹산식료공장을 찾았다. 아담하면서도 정갈하게 꾸려진 여러동의 생산건물이 규모있게 전개되여있는 공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절로 감탄을 터뜨렸다. 생산현장에 들어선 우리는 더욱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지배인 조원택동무는 기쁨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제힘으로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수행하고보니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는 신심과 배짱이 더해진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CNC화가 실현된 곡자공정에로 우리를 이끌었다. 회전식곡자공정에서 우리는 모범선동원으로 이름난 량선희동무를 만났다. 그는 곡자공정의 운영상태를 보여주는 수자표시장치를 가리키며 일터가 현대화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공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로동자들속에서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려는 열망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밀페식으로 개조된 여러 탕크들과 흐름식으로 전개된 전반생산공정을 우리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보았다.

우리는 이어 당과류생산공정에도 들리였다. 당과류작업반에서도 흐름식으로 된 사탕, 과자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생산을 다그치고있었다. 지배인동무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당과류가 맛이 좋아 군내주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고 한다.

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꾸려놓은 장절임생산공정 또한 훌륭하였다. 절임공정으로부터 제품완성공정에 이르기까지 흐름식으로 된 이 생산공정에도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 그리고 군안의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군안의 근로자들은 장절임생산공정을 꾸려본 경험은 없었지만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갔다. 여러가지 설비를 자체로 개조한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세척공정을 잘 꾸리기 위해 열정을 바친 군녀맹원들의 투쟁이야기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우리가 공장의 일군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제품포장공정에서는 녀성종업원이 날랜 솜씨로 오이장절임을 련속 포장해내고있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한 마음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듯 증산의 동음은 더 높이 울리고있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늘어난 품종, 인기있는 목제품

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맹산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목제품들이 수요자들속에서 인기를 끌며 다른 고장에까지 소문을 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올해 조합에서는 제품의 가지수를 종전보다 더 늘이였다.

40여종의 품종을 더 확대!

이 얼마나 가슴흐뭇한 혁신의 소식인가.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올해 조합에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질좋은 제품으로 만들자!

조합에서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조합의 일군들은 매월 새 품종에 대한 합평회를 조직하고 여기에 모든 종업원들이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였다. 책임일군으로부터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여러가지 가구도안을 착상하여 내놓고 그것을 합평하는 방법으로 보기도 좋고 쓸모있는 가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대중의 열의는 참으로 높았다. 조립작업반 최봉남동무를 비롯한 많은 로동자들이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훌륭한 가구도안을 내놓았으며 일부 로동자, 기술자들은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창안하기 위하여 이름난 경공업공장들에 찾아가 앞선 기술도 배워왔다.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가 합쳐질수록 목제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질이 훨씬 높아졌다. 또한 조립식목제품의 가지수가 많이 늘어났으며 이불장, 양복장, 출입문, 의자, 식탁 등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럴수록 조합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목표를 더 높이 세웠다.

이들은 새 제품개발과정을 통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작업방법도 창안하고 기술혁신투쟁도 줄기차게 벌리면서 목제품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얼마전에는 합판접착제생산방법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안하여 여러가지 합판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오늘도 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든 제품마다에 정성을 기울이며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방인철

더 좋은 래일을 향하여

자랑많은 《맹산》비누

올해에 **맹산수유나무림사업소**에서는 비누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수유나무열매에서 채취한 기름으로 적지 않은 량의 비누를 생산하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비누생산공정을 개조하여 생산능률을 높일 목표를 세우고 기술개조전투를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검화공정으로부터 성형공정에 이르기까지의 전공정을 흐름식으로 꾸리였다.

수요가 높은 토기제품

맹산독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크기의 독과 기와, 시루, 화분 등은 인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것으로 하여 그 수요가 높다.

공장에서는 주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토기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올해에만도 여러건의 새 기술을 창안하여 생산에 받아들이였다. 특히 토질조건에 맞는 유약을 새로 개발하고 연료소비를 극력 줄일수 있게 소성로를 개조한것은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본사기자

생산공정을 잘 꾸려놓은 이들은 자기 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생산한 비누의 이름을 《맹산》이라고 달았다. 여기에는 헌신적노력을 다 바쳐 맹산땅을 행복의 락원으로 가꾸어가려는 이들의 불같은 지향이 담겨져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강남군도시건설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지난 3월초 새로운 방법으로 타일을 자체로 생산하는 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환성을 올렸지만 일부 종업원들은 전문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일을 어떻게 만들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걱정부터 앞세웠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이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실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였다.

종업원들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기 위하여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단위별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타일생산공정을 꾸리는 사업에서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도 짜고들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믿음은 기술자, 기능공들을 분발시켰다.

김경선, 리철근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은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겠다는 불같은 애국의 열의를 안고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면서 타일생산에 필요한 혼합기와 진동기를 제작하였으며 이어 색갈과 광택, 견고성이 보장된 질좋은 타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지금 이곳 건설대에서는 매달 수백㎡의 질좋은 타일을 생산하여 군안의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현정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195호 주체99 (2010)년 11월 12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한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조선혁명박물관 교양부
사리원닭공장 비육직장
금성식료공장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타빈직장
서창청년탄광 5갱 고속도굴진소대
청진기초식품공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 술직장
은하지도국 은하기술쎈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과학기술편집국

3대혁명붉은기

강동탄광 고비갱
장진피복공장
보통강식료공장
평천지구고금속사업소
모란봉구역 인흥종합진료소
평천종합식당 봉남국수집
평원피복공장
장림광산 충성갱
인포탄광 3갱 채탄2중대
봉창지구탄광 운수직장
화풍탄광 화풍갱 굴진1중대
남양제염소 제10직장
순천시 북창협동농장 풀판작업반
신성과수묘목농장 제4작업반
가마포재배어업사업소 배수리직장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수직장
평안북도송배전부 전력설비보수사업소
동림공업용천공장 직포종합작업반
의주고치생산사업소 서호작업반
해주기초식품공장
벽성식료공장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생산4직장
신천과수묘목농장 광복작업반
사리원편직공장
승호과수농장 만달작업반
강원도배길표식사업소
청진재배어업 및 선박수리공장
양정탄광 양정갱 채탄2중대
경성도자기공장 성형직장
무산군 은덕원
고원탄광 승리갱 굴진중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자동차직장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동력직장
흥남구두공장 준비직장
함흥제사공장 다시감기종합작업반
대안친선유리공장 전기자동화직장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선봉옷공장
해주기관차대 운전대대 제3중대
사리원청년역 구내제1작업반
부거역
선봉철길대 명호철길소대
평양종합인쇄공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197호 주체99 (2010)년 11월 12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이바지한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영예의 붉은기

평양칠골소학교
신의주시 백사소학교

2중영예의 붉은기

평양시 석암소년단야영소

영예의 붉은기

청진시 송평구역 근동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자체의 기술력량을 발동하고 떠밀어줄 때

동평양화력발전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발전소에서는 전력생산계통전반에 대한 종합지휘를 현대적인 수자식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요구에 맞게 기술발전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전력생산계통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성과를 이룩한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력갱생의 정신을 지니고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새 기술의 개척자, 전초병이 되여야 합니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초급당위원회가 발전소자체의 기술력량으로 전반적인 전력생산계통종합지휘를 현대화할 목표를 제기하였을 때였다.

종전의 발전설비들을 그대로 두고 보이라, 타빈, 발전기운영을 비롯한 전반적인 전력생산계통종합지휘의 현대화를 실현하자면 제기되는 방대한 자료들을 실시간 콤퓨터로 종합분석하여 처리할수 있어야 하였다. 그러자면 종전의 상사식자료들을 완전히 수자화해야 하였다. 참으로 아름찬 과제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과연 해낼수 있겠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적요구로 보나 발전소의 래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였다.

하다면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발전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문제해결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정신력과 창발성을 최대한 발양시키고 동지적협조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발전특성에 맞게 정보기술분야의 과학자들과 협조를 강화한다면 얼마든지 제기된 문제를 풀수 있다고 보았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우선 자체의 기술력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따져보니 열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정보기술 등 기술력량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초급당위원회는 현대화의 총적목표를 전력생산계통전반에 대한 수자식종합지휘체계를 확립하는것으로 설정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발전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에 맞게 매 기술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술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백한 과업을 제시해주었다. 이와 함께 정보기지를 꾸리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누구나 자기말은 기술과제수행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을 비롯한 참모부의 일군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영정보연구실, 생산종합지령실, 현대화실, 과학기술보급실, 도서실 등을 새로 내오거나 번듯하게 꾸려주고 그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온갖 정열을 다 바치도록 하였다. 그에 맞게 기술일군들은 과제수행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새 기술보급과 기술지도를 따라세웠다.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이 폭발되고 창조력이 높이 발양될 때 점령 못할 과학기술적요새란 없다. 보이라, 타빈, 발전기 등 말단정보자료들이 자체로 개발한 프로그람에 의하여 콤퓨터화면들에 현시되는 모습은 볼만 하였다. 그처럼 어렵고 아름차게 생각되던 기술적문제들이 척척 풀려나가니 모두의 기쁨은 이를데 없었다.

하지만 한가지 문제만은 좀처럼 풀기 어려웠다. 방대한 말단정보자료들을 모두 콤퓨터를 리용하여 실시간적으로 종합분석하여 전력생산계통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하자고 하니 연산속도가 빠른 콤퓨터가 있어야 하였다. 그리고 기술력량도 미약하였다.

이 문제해결에서 이곳 일군들이 잘한것은 동지적협조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발전특성에 맞게 일을 설계하고 작전한것이다. 발전소일군들은 제기된 문제를 나라의 권위있는 과학교육기관의 방조를 받아 풀기로 결심하였다.

이들의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선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은 적극적이였다.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발전소앞에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자기들이 완성한 연구성과들을 발전소기술자들에게 통채로 넘겨주는 동지적협조는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과학자들의 진심어린 방조속에서 기술봉사까지 받은 발전소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높아졌다.

확실히 현장기술자들이 과학자들과 동지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기술적진보의 지름길이였다. 계획했던것보다 짧은 기간에 발전소의 전반적인 전력생산계통에 대한 종합지휘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그 운영을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실현할수 있게 된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동평양화력발전소 일군들의 사업은 당의 인재중시사상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기술력량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총폭발시키는 동시에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할 때 자기 단위의 기술발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두줄기 궤도우에 빛나는 값높은 삶

청진기관차대 《붉은기》6014호 책임기관사 신덕길동무

《붕—》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오늘도 전기기관차 《붉은기》6014호가 차판마다 짐을 가득 싣고 강성대국건설전투장을 향하여 청진청년역을 떠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고 차체에 3대혁명붉은기휘장과 《청년호》라는 글발이 부각되여있는 이 전기기관차의 책임기관사가 바로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신 공훈기관사 신덕길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30여년간 103만9000여km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면서 2억 수만t의 짐수송, 지난 10년동안 1만5000여t의 짐 더 수송, 해마다 수송계획 120%로 넘쳐 수행…

이 수자속에 두줄기 궤도우에 첫 자욱을 새긴 그날부터 티없이 순결한 량심과 헌신으로 당을 받들어온 신덕길동무의 값높은 삶이 비껴있다.

오늘도 무사고로!

주체82(1993)년 12월 24일 《붉은기》6014호의 책임기관사로 임명된 신덕길동무는 흥분된 가슴을 진정할길 없었다.

《붉은기》6014호는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8축전기기관차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76(1987)년 9월 친히 보아주신 기관차였다.

하기에 그는 기관차대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진심어린 축하속에 뜻깊은 《붉은기》6014호의 주인이 된 남다른 긍지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붉은기를 휘날리며 두줄기 궤도를 따라 질풍같이 내달릴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밤깊도록 기관차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그날 저녁 신덕길동무가 집으로 들어서자 아들, 딸이 달려나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붉은기〉6014호의 책임기관사동지,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딸인 신은별이 아버지의 귀에 대고 어머니가 쓴것이라고 속삭이며 방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가리키였다. 그 문의 유리창에는 아침까지 볼수 없었던 《오늘도 무사고로!》라는 주먹만 한 크기의 붉은색글발이 새겨져있었다.

그 글발에서 이윽토록 눈길을 떼지 못하던 신덕길동무는 아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정말 어깨가 무겁구나.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기관차의 책임기관사가 된 영예를 안고 일을 많이 하여 내 꼭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기관사가 되련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도 처녀시절에 철도에서 전철원으로 일하였다고, 그러니 명철이는 아버지가 타는 기관차의 기관사가 되고 은별이도 철도에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철도가정이 되여 대를 이어 이 믿음에 꼭 보답하자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이렇듯 철도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보답의 뜨거운 마음을 지니였기에 신덕길동무는 기관차를 몰면서 철길상태가 나쁜 구간이 있으면 수첩에 빠짐없이 적어두었으며 운행길에서 돌아오면 몰려드는 피곤을 이겨내면서 계획적으로 철길을 깐깐히 밟아보군 하였다.

어느해 장마철이였다. 그날도 승무길에서 돌아오던 신덕길동무는 지난 시기에 좋던 철길구간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끼였다. 그는 교대하기 바쁘게 다시 기관차에 올랐다. 교대기관사가 힘들겠는데 왜 기관차에 다시 오르는가고 하면서 그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말없이 기관차와 함께 떠난 그는 어느 한 역에서 내리였다. 기관차를 떠나보낸 후 그는 되돌아서 걸으며 철길상태를 하나하나 료해하였다. 그러던 그는 철길이 음부분이 비정상인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즉시 그 구간을 수첩에 적어넣은 다음 해당 철길소대에 찾아가서 그 구간이 기관차의 무사고운행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무사고운행을 위한 그의 이렇듯 지칠줄 모르는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작업반원들은 운행구간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지형지물과 조건 등을 환히 꿰들수 있었으며 각이한 정황에서의 표준운전조작법을 완성할수 있었다.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자면 승무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하며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자체의 힘으로 수리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면서 기관차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작업반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는것과 함께 매 사람들에게 기관차에서 장치별로 고정담당시키고 자기가 맡은 부분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1년후에는 고정담당부분을 바꾸어 누구나 기관차에 정통하게 하였다. 그와 함께 기관조사들이 새로 배치되여오면 언제나 데리고 운행길에 올랐으며 진눈까비가 내릴 때면 올리막에서 모래를 얼마나 쓰며 제어기는 어떻게 조작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는 직접 기관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기관차가 기술역들과 도착역들에 멎으면 놓치지 말고 검사해야 할 부분을 검차원이 된 심정으로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관조사들을 어루만지지만 않았다.

어느날이였다. 이제 떠나야 할 기관차의 압축기소리를 듣던 그는 기관조사에게 기관차를 정비하면서 기름을 넣은 정형에 대하여 물었다. 구멍마다 기름을 다 넣었다는 기관조사의 대답을 들은 신덕길동무는 압축기를 멈추게 하고 기름구멍들을 다시 검열하기 시작하였다. 아니나다를가 한 기름구멍이 막혀있었다. 그는 기관조사에게 엄하게 말하였다.

《압축기는 기관차에서 심장부라고 할수 있소. 그러므로 압축기관리를 잘해야 견인정량을 초과할수 있고 무사고운행을 보장할수 있소. 그런데 압축기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기관차에 탈 자격이 있는가?》

《?!》

이윽하여 신덕길동무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한 기관사가 되자면 기관차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그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그래야 기관차가 자기의 성능을 발휘할수 있고 기관사가 마음먹은대로 많은 짐을 끌면서도 무사고로 달릴수 있는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매개 기름구멍마다 넣어야 할 기름량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언제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도 신덕길동무는 교대후 한밤을 꼬박 새우며 수리정비에 필요한 여러가지 예비부속품을 마련해가지고 기관차대로 들어섰다. 그때 기관차에 배치된지 얼마 안되는 기관조사가 그의 잔등에서 부속품이 든 배낭을 받아내리우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기관차는 다른 기관차와 달리 수리기지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대겠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 말에 신덕길동무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눈비오고 바람세찬 낮이나 밤이나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각하면 자기가 모는 기관차를 자기 손으로 정비하여 무사고운행을 보장하는 일이 무슨 고생이겠소.》

자나깨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장군님을 따라 두줄기 궤도우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신덕길동무의 이렇듯 뜨거운 마음에 이끌려 기관조사들은 5~6년이면 훌륭한 기관사로 성장하였으며 지금까지 그가 키워낸 30여명의 기관사들은 다른 기관차에 가서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그뿐아니라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작업반에서는 지금까지 기관차수리정비에 필요한 3880여개의 각종 기공구와 제동통, 용수, 제어선 그리고 단자와 애자 등에 이르기까지 50여종에 3만7000여개의 예비부속품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고 제어발전기에 의한 직류용접기, 유압계기자동장치 등 7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여 오늘도 무사고운행을 보장하고있다.

궤도우의 붉은기가 되리

사람들은 신덕길동무를 가리켜 좀처럼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낮이나 밤이나 늘 깊은 생각속에 잠겨있는 그의 가슴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의 짐이라도 더 수송하겠는가 하는 그 한생각뿐이다.

그는 일부 동무들이 견인정량보다 화차를 더 다는것을 두려워할 때에는 방금 승무를 교대하고도 다시 기관차에 올라 그들과 함께 운행길을 달리면서 담을 키워주고 운전묘리를 가르쳐주군 하였다.

어느날 그가 기관차를 몰고 한 기술역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역구내를 둘러보던 그는 3개의 화차가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알아보니 철길상태가 좋지 않아 앞선 기관차가 정량만 달고 떠나서 남아있는 화차였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철도수송이 늦어지면 강성대국건설이 그만큼 늦어진다. 우리가 저 화차들을 달고가자.

기관조사에게 이렇게 말한 그는 차갈이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역운전지휘원이 달려와 지나친 욕망이 아닌가고, 안전하게 떠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기관조사도 이미 정량보다 10개의 화차를 더 달고 떠났는데 이제 3개의 화차를 더 달면 올리막을 오를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만류하였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총포성은 울리지 않아도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고있다. 그러니 전시라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의 《붉은기》6014호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것이라고 하면서 역을 떠났다. 그가 능숙한 운전조법으로 정량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끌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였다.

지난해 기관차대에서 성강의 철강재생산에 필요한 짐을 수송하기 위한 전투를 벌릴 때도 그랬다. 그날도 정량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끌고 기관차가 어느 한 령마루로 오르기 시작하는데 보슬비가 내리면서 차바퀴가 헛돌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기관차에서 뛰여내린 기관조사가 철길우에 모래를 뿌리다 말고 역으로 되돌아가서 몇개의 화차를 떼놓고 령을 넘은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 화차를 달고가자고 하였다.

《몇개의 화차를 떼놓자고?

알아두라구. 〈붉은기〉호전기기관차의 기관사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앞장에서 달리는 궤도우의 붉은기가 되겠다는 결사관철의 의지로 기관차를 운전해야 해.》

그러면서 그는 서서히 기관차를 몰아가기 시작하였다. 끝내 기관차가 령마루에 올라섰을 때 기관조사는 너무 기뻐 환성을 올리였다. 그때 신덕길동무는 얼굴에 웃음을 담고 이렇게 말하였다.

《명심하오. 우리의 〈붉은기〉6014호는 한번 달고 떠난 화차를 떼놓을줄 모르며 끝까지 달고 가는것이 견인초과라는것을.》

그는 이렇게 기관조사들에게 한개의 화차라도 더 달고 더 빨리 실어나르려는 담력과 배짱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을 엄하게 대하면서도 생활에서는 언제나 맏형, 맏누이의 심정으로 이끌어주었다.

—한의 짐이라도 더 끌자면 기관사와 기관조사는 물론 가족들까지 한가정, 한식솔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끄는 단합된 집단으로 되여야 한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면서 한줌의 통강냉이도 귀하던 고난의 시기에도 맏형의 심정으로 자기 집에서 작업반원들의 생일상을 꼭꼭 차려주었으며 작업반원들중에서 누가 앓기라도 하면 밤을 지새워가며 맏누이의 심정으로 간호해주었다.

하기에 작업반원들은 언제나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여 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이고 한t의 짐이라도 더 끌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가족들도 《붉은기》6014호를 새차처럼 꾸리는데 뜨거운 애국헌신의 마음을 바쳐왔던것이다.

얼마전 신덕길동무의 아들이 《붉은기》6014호의 기관사가 되여 첫 운행길에 오르던 날 사령원, 지도기관사로 일하는 동무들이 딸 신은별이 기관차대에서 일하고 오늘은 아들 신명철이 《붉은기》6014호의 기관사로 되였으니 정말 기쁘겠다고 하면서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그날 신덕길동무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정말 기쁘구나. 우리 영원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맨앞장에서 달리는 궤도우의 붉은기가 되자꾸나.》

이것이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삶의 지향이였다. 그 지향, 그 의지를 안고 《붉은기》6014호는 오늘도 동해연선의 두줄기 궤도우로 힘차게 달린다. 어버이수령님의 리상,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 현실로 꽃필 강성대국의 새 아침을 향하여.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로주봉

신덕길동무 (왼쪽에서 세번째)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어린 선물식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중앙식물원 선물식물온실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삼곡땅에 선경마을을 일떠세운 량강도인민보안국 인민보안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량강도인민보안국의 인민보안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삼수군 삼곡리에 사회주의선경마을을 일떠세웠다.

도안의 인민보안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새로 꾸려놓은 삼곡마을에는 수십세대의 농촌문화주택들과 소학교분교,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가 번듯하게 일떠서고 소형수력발전소들이 건설되여 인민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고있다.

아늑한 골짜기를 따라 감자종자저장고, 감자종자싹틔우기장, 식료가공실, 게사니와 토끼우리를 비롯한 농축산기지들과 감자, 강냉이, 콩, 남새포전, 수십정보의 잣나무, 오미자, 두릅나무림, 양묘장, 꿀생산기지, 약초밭들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마을과 탄탄하게 뻗어간 도로를 따라 심은 앵두나무, 추리나무 등 과일나무들은 선경을 펼친 삼곡땅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그런가하면 양어장에는 물고기들이 꼬리쳐놀고 산기슭과 등판을 따라서는 100여정보의 자연풀판과 인공풀판이 펼쳐져있어 집짐승방목에 유리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높이 솟아있는 량강땅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릴 애국의 열의에 충만된 도인민보안국의 책임일군들은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삼수군 삼곡리에 종합적인 축산기지와 함께 선군시대의 자랑으로 될 선경마을을 꾸릴것을 발기하였다.

내 나라 강산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을 일떠세울 애국의 한마음안고 도인민보안국의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강력한 건설력량이 조직된 후 현지로 달려나온 도인민보안국의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하였으며 전투장에 혁명적랑만과 기백이 차넘치게 하였다.

현장건설지휘부에서는 인민보안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도로부터 자체의 힘으로 새롭게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로력과 운수수단들을 집중하여 도로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도인민보안국 인민보안원들은 로반닦기와 다리공사, 옹벽쌓기, 가로수심기를 하여 도로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간마다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고 건설속도가 비상히 빨라졌다. 시와 군들에서 달려나온 인민보안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결사관철의 의지와 신념을 안고 선군시대와 더불어 빛날 선경마을건설에 구슬땀과 열정을 다 바치였다. 인민보안원들의 안해들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전투장으로 달려와 선경마을건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인민보안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속에 삼곡땅에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농목장이 일떠서고 거기에서 생산된 고기와 우유는 혜산시안의 전쟁로병들과 특류영예군인들, 618건설돌격대원들과 혜산중등학원 원아들과 도육아원 어린이들에게 보내여졌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 량강도인민보안국 책임일군 조일구동무와 인민보안원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이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진 삼곡땅을 찾는 혜산시와 여러 군의 일군들은 인민보안원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삼곡땅에 펼쳐진 또 하나의 선경마을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강성대국의 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특파기자 전철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믿뿌리로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질좋은 소비품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려지게 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우리 공장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공장으로서 인민생활과 뗄수 없는 련관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크지 않아도 인민생활에서 노는 역할이 중요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에 여러차례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면서 인민소비품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수십년전 공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에 나와보려고 생각한지는 오래되였으나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하여 오늘에야 나오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공장이 수도시민들의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과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깊이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해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치솔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또다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여러가지 모양의 치솔들을 다 보아주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쓸것인데 사소한 흠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치솔의 미세한 부분까지 헤아려보시면서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한 이런 고급한 치솔을 인민들에게 보내주게 되였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친근한 음성은 오늘도 우리모두의 가슴을 울리고있다.

뜨거운 그 사랑, 그 은정으로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의 해로 정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간직하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 일용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왔다.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새겨진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치솔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한조항한조항 새겨가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에 정통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한편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질좋은 치솔을 더 많이 생산해내였다.

가방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들에서도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합리적인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내놓기 위한 사업이 직장들마다에서 더욱 활기있게 벌어져 제품들에는 생산자들의 지혜와 열정, 지극한 정성이 뜨겁게 깃들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새 세기에 꾸려진 머리빈침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녀성들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에 맞게 제품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직장들이 매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달중으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열의에 넘쳐있다.

올해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년말이 다가오는 이 시각도 우리 공장종업원들의 가슴가슴은 같은 원료, 같은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는 질좋고 맵시있는 훌륭한것들을 내놓기 위해 애써 일해야 한다고 한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여 세차게 높뛰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소비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올해를 더 높은 생산적앙양으로 빛내이겠다.

평양일용품공장 지배인 김영남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올해초 김철의 로동계급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투쟁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것이다. 그것을 잘 알고있는 우리 미곡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으로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나날 우리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간직된것은 농장에 돌려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농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농장을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꾸려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새해영농전투에 진입한 우리 농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찬바람부는 논두렁길을 걸으시면서 새해농사차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논판마다에 산더미같이 쌓인 질좋은 거름무지들과 우렁찬 동음을 울리며 달려가는 뜨락또르의 행렬, 질서있게 정돈된 각종 소농기구들과 영농자재들을 보시고 우리 농장원들의 주인다운 일본새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으며 지난 기간 알곡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작업반장들과 분조장들을 만나주시였다.

올해 농장을 찾아오시여 우리들의 투쟁을 뜨겁게 고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농장원들의 심장속에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농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대로 종자혁명방침관철에 계속 큰 힘을 넣었으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또한 농업의 집약화, 과학화수준이 높아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각종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였으며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였다.

초급지휘성원들인 분조장, 작업반장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감으로써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영농과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하여 올해 일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년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농업전선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공전선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식량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감으로써 세계적인 식량위기에도 끄떡없이 대풍을 안아오던 1970년대처럼 이 땅에서 나는 우리의 오곡백과로 우리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송윤희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는 석탄에서 전기와 주체철, 세멘트도 나오고 비료도 쌀도 나온다고 지적되여있다.

지난 기간 우리 탄광에서는 당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해마다 질좋은 석탄을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제때에 보내주었다. 탄차를 비롯한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였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 앞선 작업방법이 현실에 적극 도입되였다.

우리는 지금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마지막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온 탄전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칠 탄부들의 불같은 열의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대중의 기세는 충천하며 전망 또한 락관적이다. 문제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최대로 분출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나는 경제작전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어 진행하며 탄광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겠다.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이 제때에 생산에 도입되도록 하겠다.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자리는 들끓는 생산현장이다. 나는 생산자대중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김철의 호소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똑똑히 해설해주고 어려운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면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나가겠다. 또한 자기 단위 종업원들의 생활은 자신이 책임지는 립장에서 후방공급사업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리겠다.

하여 뜻깊은 올해의 총공세에서 탄광안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이 김철의 로동계급과 어깨나란히 위훈자의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문천탄광 지배인 김진규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

지금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내외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반공화국대결야망을 계속 드러내고있다.

한편 외세와 결탁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비롯한 군사적도발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이러한 망동은 그들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오로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올해공동사설은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라고 밝히였다.

해내외의 우리 겨레는 공동사설의 요구대로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은 우리 겨레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렬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동족이 서로 대결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해 우리 공화국은 이미 오래전에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하나가 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다. 결과 20년전 북과 남, 해외인민들의 통일애국의지를 대표하는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되고 그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이 부단히 강화되여왔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시종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북남관계에서는 지난 시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우리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같은 조국통일의 리정표들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지난 시기 마련된 북남관계발전의 모든 성과들을 백지로 만들어버리고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최근에도 그들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도발가능성》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인위적으로 남조선의 전지역에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의 총포소리를 매일과 같이 울리고있다. 지어는 북남사이의 인도주의협력사업마저 외면하면서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적인 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민족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에 의해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것도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바로 우리 민족이다.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대대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이미 반세기가 넘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살고있으며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있다. 나라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북남사이의 대립과 차이점은 더욱 커지게 될것이다. 민족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 대립과 차이점은 그 어떤 외적요인에 의하여 해소될수 없다. 그것은 해내외의 우리 민족성원모두가 주인이 되여 떨쳐일어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투쟁할 때만이 해소될수 있는것이다.

민족의 대단결과 주체적력량을 외면하고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민족적불행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대하여 론하는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떠난 조국의 통일을 기대할수 없다.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으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은 지난날과 같이 나라를 잃고 외세에게 짓밟혀 신음하던 불행한 민족이 아니라 위대한 선군정치의 보호를 받으며 범민련과 같은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을 가지고 광범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높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이 있으며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밝혀주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조선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하여 외면할수 없다.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고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서 살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버려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위하여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겨레의 숙원을 성취할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옹호하고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의 자주와 나라의 평화, 조국통일의 근본담보가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옹호하고 적극 리행해나갈 때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그날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

리 성 호

≪이북은 이남민중의 리상향≫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 공화국의 사회제도를 남조선인민들은 한없이 동경하고있다.

언제인가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선 울산의 로동자들은 이런 말들을 나누었다.

《로동자가 생존의 초보적인 권리를 지키자고 해도 권력의 탄압을 받아야 하는 이 세상이 한없이 저주스럽다. 언제까지 우리 로동자들은 사회적무권리와 불평등을 당하고있어야만 하는가. 로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로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는 그런 사회에서 단 하루, 단 한순간이나마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북사회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로동자중시사회, 민중중심의 사회이다. 이북에서는 국가적, 사회적시책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준다. 이북사회에는 해고라는 말자체가 없다. 이북에서는 땀흘려 일하는 우리같은 로동자, 농민들이 이남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이 되여 나라의 정사에 참여한다고 하니 이것이 별세상이 아닌가.》

《공화국북반부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행복을 누리는 리상향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이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정치가 낳은 결실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광주의 한 농민은 《**김정일**령도자님께서 한번 다녀가신 농가마을들에는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줄지어 일떠서고 옛말에나 나오던 선경이 펼쳐진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농민들이 있지만 공화국의 농민들처럼 령도자의 하해같은 사랑과 혜택속에서 농사를 짓는 나라는 없다. 생각할수록 **김정일**령도자님의 정치하에 천지개벽한 드넓은 벌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는 북의 농민들이 부럽기만 하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시는 절세의 위인의 품속에서 사는 북의 농민들은 참으로 복받은 농민들이다.》라고 자기의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의 이 칭송의 목소리에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과 함께 그이의 품에 안겨 살려는 강렬한 지향이 그대로 어려있다.

남조선의 현대사연구원은 《민중의 위대한 충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민중중시, 민중우선의 위대한 정치를 펴나가고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모심으로 하여 우리 민중은 보다 희망찬 앞날을 확신하고있다. 민중의 위대한 어버이께서 펼쳐주시는 사랑의 정치가 이 땅에도 찬연한 현실로 꽃피게 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음을 우리 민중은 굳게 믿고있다.》

어느 한 재야인사도 자기의 심정을 글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일**령도자님의 현지시찰길은 이북민중의 기쁨이 커지고 나라의 재부가 늘어나는 길이며 부강번영의 도약대가 마련되고 민중화원이 더욱 개화만발하는 로정이다.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민중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는 이북의 사회주의는 억년쇠퇴를 모르며 영원히 개화만발할것이다. 령도자의 사랑과 민중의 충정이 결합되여 이루어진 그 공고한 결정체를 깨뜨릴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북은 우리 이남민중의 리상향이다. 통일조국은 이북과 같은 세상으로 되여야 한다.

김정일령도자님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밝은 세상이 오리라.》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조국통일의 길에 힘차게 떨쳐나설 때 자기들도 공화국북반부의 인민들처럼 값있고 존엄높은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다.

하기에 서울의 한 로동운동가는 투쟁현장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웨쳤다.

《우리 이남의 로동자들이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하나로 굳게 뭉칠 때 통일의 마당은 커지고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린다. 로동자가 앞장서면 통일이 다가온다.

김정일령도자님을 받들어 근로자가 주인된 참된 세상을 안아오자.》

본사기자

로씨야고통련
범민련결성 20돐 기념모임 진행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결성 2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18일 기념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는 로씨야고통련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범민련이 결성된 후 지난 20년간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인하여 북남관계가 파탄된 현정세는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세차게 전개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로씨야고통련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위해 계속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6.15시대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출판물들을 돌아보았다.

반인권적행위에 항의하여 집단사퇴

남조선신문 《한겨레》 15일부에 의하면 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의 반인권활동에 반발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부 상임, 비상임위원들이 련이어 사퇴하는 속에 산하위원들도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특히 현 당국자가 《정부》에 추종하는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함으로써 그 불신임이 더 커졌다고 한다.

인권위원회의 전문, 상담, 자문위원들 57명은 이날 집단사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 당국자와 그에 추종하는 현병철이 있는 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그 어떤 활동도 기대할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인권위원회의 근본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떠나게 되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국이 다시는 이런 문외한이 위원장자리에 들어앉을수 없도록 옳바른 인사정책을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인권침해의 원흉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인권위원회의 옳바른 사명을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현병철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가 현병철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에 궐기하고있다.

본사기자

반로동자정책에 맞서 싸울것을 호소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13일 《전태일렬사회생 40주기, 우리모두 전태일이 되자》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독재《정권》의 반로동자정책에 항거하여 분신자결한 전태일렬사의 정신은 오늘도 로동자들을 민주로조운동에로 고무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렬사가 희생된 때로부터 40년이 되였지만 이 땅에는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는 로동자들이 수없이 많으며 당국의 반로동자정책에 반항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있다고 론평은 개탄하였다.

론평은 로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전태일렬사의 정신을 이어 모든 진보단체들이 련대련합하여 현 《정권》의 반로동자정책에 맞서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련이은 사고

북침전쟁연습에 내몰린 남조선군부대들에서 사고들이 련이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17일 경기도 려주일대의 남한강에서 도하훈련에 돌아치던 남조선군 제5군단소속 공병부대의 고무뽀트 1척이 뒤집혀 3명이 즉사하였다. 이에 앞서 16일 남조선강원도 홍천에서 전술기동훈련에 날뛰던 한 부대의 장갑차들이 서로 충돌하여 그중 1대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본사기자

격분을 자아내는 파쑈악행

악화된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자면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반공화국도발행위들과 함께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찬양하고 련북통일을 지향하는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탄압책동이 중지되여야 한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저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에 걸어 계속 탄압한다면 북남관계는 결코 개선될수 없고 설사 대화와 협력이 진행된다고 해도 서로의 불신은 가셔질수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 우리를 걸고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파쑈적인 사상탄압책동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거나 련북통일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을 그 무슨 《친북좌파》, 《종북세력》으로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탄압공세를 감행하고있다. 지어 주민들의 인터네트활동의 자유까지 말살하며 사회적으로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억눌러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7일 남조선사법당국은 한 로동자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구속기소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사법당국은 그가 한 인터네트싸이트에 올해 6월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고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편집물들을 여러차례 올렸다는 리유로 이런 무지막지한 횡포를 저질렀다. 파쑈광들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가 리용한 인터네트싸이트의 운영자와 《불온한 내용》의 게시물들을 올린 회원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 모처럼 대화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대화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사상탄압소동을 벌린것은 실로 격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온 민족이 따르는 절세의 위인들을 흠모한것을 감히 그 무슨 《위반》으로 몰고 인터네트싸이트에 글과 영상편집물들을 올리지 말것을 강박하다 못해 구속기소하는 망동을 벌린것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감의 표시이며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남조선에서는 군부파쑈독재가 판을 치던 지난 시기에는 물론이고 6.15통일시대인 오늘날에조차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따르고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인사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소동이 계속되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파쑈광들은 우리 공화국의 노래들을 보관하고있다는 리유로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선전위원장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표현물의 리적성》이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그에게 이미 형벌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그들은 그가 보관하고있던 노래들이 모두 남조선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연주곡이라도 제목에 《북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면 《리적표현물》이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론리를 들고나왔다. 남조선당국의 이런 무지막지한 사상탄압책동에 의해 수원의 한 주민도 인터네트홈페지에 《북의 체제를 찬양하는 리적표현물을 게재, 류포》시켰다는 《죄》를 쓰고 쇠고랑을 찼다.

현실은 동족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적대감과 대결관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며 그에 따라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며 련북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단체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상탄압책동이 날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런 무분별한 탄압책동은 북남관계개선에 또 하나의 큰 장애로 되고있다.

인간의 사상과 신념은 강요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파쑈폭압에 열을 올리여도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들을 열렬히 칭송하며 련북통일을 이룩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지향은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복 은 희

굴욕협상놀음에 대한 강력한 항거

인민들의 생존권과 의사는 외면한채 미국에 아부하면서 한사코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협상놀음에 매여달리는 당국의 매국책동에 남조선인민들은 대중적투쟁으로 항거해나서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남조선의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의 미국대사관주변에서 제134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가지고 굴욕을 강요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집권세력의 반민족적범죄행위를 단죄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미국에 의한 온갖 굴욕과 희생을 더이상 원치 않는다.》고 웨치면서 《자유무역협정》체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조선의 《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얼마전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자유무역협정》재협상놀음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단체는 회견문을 랑독하고 당국이 그 무슨 《경제령토확장》의 미명하에 《자유무역협정》재협상놀음에 매달리고있지만 그것은 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초래하는 반인민적망동이라고 폭로하면서 그것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주로총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자들을 고통속에 몰아넣게 될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나갈것을 선언하였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자본가의 리익만을 중시하는 반인민적협정, 일자리마련과 로동조건에 막대한 해를 주는 협정이 결코 체결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련대투쟁을 다짐해나섰다.

이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도 당국의 반인민적책동을 규탄하는 초불집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 집권세력의 망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만약 재협상이 지금상태로 이루어진다면 민생이 파탄되는것은 물론 후대들에게도 빈곤만을 물려주게 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평등과 참다운 생활을 위하여 각계가 련대와 단결로 반《정부》투쟁을 강화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일방적으로 가는 〈자유무역협정〉재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강요를 《조정》이니 뭐니 하고 변명해나서는 《정부》의 기만적인 처사를 까밝혔다.

당국의 《자유무역협정》재협상놀음을 반대하는 투쟁은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계기로 더욱 고조되였다.

남조선의 《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회의시작날인 지난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국과의 협정체결에 돌아치는 당국의 망동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굴욕적인 재협상에 매여달린데 대해 폭로하고나서 《우리의 싸움을 중단할수 없다. 불평등한 협정체결을 막아내자.》고 하면서 각계층이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참여련대는 론평을 발표하여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희떠운 소리를 해온 당국자들이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위한 비밀협상을 강행한데 대해 규탄하였다. 단체는 론평에서 당국이 미국에 자동차시장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한데 이어 소고기시장까지 추가개방한다면 전체 인민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야당들도 각계 단체들과 함께 당국의 망동을 단죄규탄하는 련대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회》청사앞에서 결의집회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 싸워나갈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당국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재협상을 반대하는 비상시국롱성 등 다양한 형식의 투쟁들을 전개하였다.

얼마전 민주당,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5개 야당대표들은 당국의 《자유무역협정》재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모임을 열고 야당들이 서로 련대하여 협정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사코 강행을 추진한다면 제2의 초불항쟁을 불러일으킬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미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민족의 리익을 상전에게 통채로 팔아먹으려는 당국의 굴욕적인 망동에 대해 단죄하는 반《정부》투쟁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이로 하여 보수집권세력은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리고있다.

장 윤 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당국을 비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2일 시민사회단체들을 범죄시하는 당국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현 《정부》가 국제회의기간 서울에서 가지기로 되여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가로막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차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속심이 깔려있다고 사설은 까밝혔다.

사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정부》의 태도는 국제적비난을 피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처사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4대강정비공사의 기만적정체를 폭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17일 보수패당이 강행하는 4대강정비공사의 기만적정체를 폭로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최근 《한겨레》신문이 4대강정비공사가 끝나면 전지역에서 배길이 완성된다고 보도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4대강정비공사가 실지에 있어서는 대운하건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해주고있다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론평은 그동안 《정부》가 이에 대해 계속 발뺌해왔지만 4대강의 대부분 구간의 물깊이가 4m이상이고 강폭도 대폭 넓어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앞에서 당국의 억지주장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고 지적하였다.

결국 4대강정비공사는 대운하건설을 위한 리명박《정부》의 사기극이라고 하면서 현재 강행되고있는 공사는 당장 중지되여야 하며 관련예산은 삭감되여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론평은 모든 야당들이 4대강정비공사예산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부정부패행위를 규탄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학생위원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여 보수패당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였다.

성명은 최근 당국자의 일가족속의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나 사회적비난이 쏟아지고있다고 밝혔다. 더우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며 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려 꾀하고있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현 《정부》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거듭되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대결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놀음

해내외에서 북남관계개선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진정성》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자주 떠들고있다. 그들은 북이 《태도변화》를 비롯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대화와 협력에 나설수 있다고 우기고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를 찾아간 남조선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그 누구의 《진정성》을 운운하면서 관광재개관련 회담은 《후에 두고볼 일》이라는 고약한 수작을 늘어놓았다.

현인택은 지난 15일에도 북이 핵문제 등에서 《립장변화를 보이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진정성》타령을 되풀이하였다.

외교통상부패들도 북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남북대화를 재개할수 없다.》고 비린청을 돋구고있다.

한마디로 남조선집권세력은 《진정성》이라는 말을 저들의 반통일대결책동을 정당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기 위한데 극구 써먹고있다.

속 검은자일수록 비단두루마기를 입는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진정성》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걸고드는것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그들의 《진정성》타령은 사실상 대결광신자, 대화방해군으로서의 저들의 반통일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대화와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우리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성의있게 노력하였다.

남측이 상봉장소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립장을 고집하고 지어 《상봉을 안해도 좋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소원을 풀어주고 그것이 북남관계개선에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아량을 베풀어 상봉을 성사시키였다.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책동으로 하여 금강산면회소가 동결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어 상봉이 진행되게 한것이 과연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태도가 아니란 말인가.

지금 우리가 인도주의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을 주장하고있는것도 그것이 현 사태하에서 북과 남의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해소하고 악화된 북남관계를 풀어나갈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이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동포애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노력을 성의있게 받아들였다면 북남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발전할수 있는 확고한 길이 열리였을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보고는 《진정성》을 보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도 저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그 어떤 진정한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구태의연하게 《책임있는 태도》니 뭐니 하고 우리를 계속 걸고들며 인도주의협력사업의 확대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집요하게 반대하고있다.

얼마전에도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국회》에서 있은 《국정감사》라는데서 금강산관광재개문제에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5.24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련계되여있다.》고 횡설수설하면서 《3대조건》과 함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관광재개에 대한 거부적립장을 명백히 드러냈다.

돌이켜보면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성》타령을 늘어놓는것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대해 찍하면 《전술적변화》니, 《진정성결여》니 하고 헐뜯었으며 《원칙고수》의 미명하에 대화와 접촉의 재개를 완고하게 거부하였다.

북남협력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무슨 《대북사업 4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와 가로막았으며 지어 민간단체들사이의 소소한 협력까지도 북남관계상황을 구실로 사사건건 차단시켰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자주통일시대를 감히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하고 《원칙고수》를 운운하며 6.15이후 북남사이에 이룩된 모든것을 통채로 뒤집어엎고서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전술》이니 하고 모독하는것은 실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우리가 대화를 강조하면 《내부사정에 의한것일수 있다.》고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대하고 우리가 최대한의 아량과 성의를 보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변화가 아닌 전술적변화》라는 고약스러운 망발로 그에 찬물을 끼얹는것이 바로 북남관계문제를 대하는 남조선집권세력이다.

《시작이 어렵더라도 끝이 좋아야 한다.》, 《소걸음으로도 천리를 간다.》,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다 등의 별의별 배포유한 수작들을 다 내뱉으며 내외여론이 한결같이 바라는 대화에 제동을 걸고 지연전술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반대화, 반통일적자세를 놓고 과연 누가 북남관계문제를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들이 우리를 걸고 극히 도발적인 《급변사태》망발을 끊임없이 줴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꿈꾸며 불순한 체제대결각본과 《통일세》제안까지 들고나온것은 《진정성》은 고사하고 북침야망만을 짙게 드러낸 용납 못할 반민족적망동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진정성》타령의 허황성과 그것을 집요하게 늘어놓고있는 목적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아무리 《진정성》타령을 늘어놓아도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저들의 죄악을 가리울수 없으며 대화와 협력의 길이 열리지 않고있는 현 사태의 책임을 모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진정성》타령을 작작 늘어놓고 자기들의 반통일죄행에 대해 돌이켜보아야 하며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걷어치우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김 향 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조선

민족의 강대성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그것이 위대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있다는것을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력사의 진리로 확증하였다.

하기에 국제사회계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만을 떨쳐온 선군조선의 자랑찬 현실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웰남친선조직들의 련합회 총서기는 평양문화전시관을 참관하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의 현실은 걸출한 수령을 모실 때 나라와 인민이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민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관을 통하여 강성대국을 기어이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굳은 의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강한 국력을 가진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

미국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같은 애국의 호소와 헌신의 령도따라 한결같이 떨쳐나 드세찬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는 속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놀라운 진군속도가 창조되고 시대를 격동시키는 희한한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격찬하였다.

빼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은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조선의 일심단결은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군대와 인민이 한가정, 친형제처럼 서로 위해주고 도와줄뿐아니라 운명을 함께 해나가는것이 바로 오늘날 조선사회의 참모습이다, 지휘관과 병사,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이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세상에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인디아신문 《라버 메일》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을 실현하시였다고 하면서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놓을수 있은 비결은 바로 조선에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라는 최강의 사회정치적무기가 있기때문이라고 전하였다.

말리신문 《에꼬》는 《최근년간 조선의 현실을 통해 국제사회는 이 나라의 위력에 대한 인식을 명백히 하게 되였다.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은 비결은 바로 이 나라에 일심단결이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기때문이다. 그 힘으로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라고 찬양하였다.

기네 꼬나크리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전후 조선에서 처음으로 천리마가 나래쳐오를수 있게 한 기본요인이였다. 천리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나가는 일심단결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의 경제형편이 대단히 어려웠던 1950년대 강선에서 타오른 혁신의 봉화는 삽시에 천리마운동으로 온 나라에 파급되였으며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과 마음도 숨결도 함께 하며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갔다. 》

주체조선의 상징인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고 그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는 오늘 세계도처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는 뿔레찐에서 조선에서는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수뇌부를 핵으로, 수령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집권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본분이라는것을 밝히시고 당이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는것과 함께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어머니당으로 되게 하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이민위천의 좌우명은 조선로동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고있다. 하여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게 되였다. 조선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의 나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 》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조선인민이 김정일각하를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고있는데 대해 세계가 공인하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일각하의 모든 사상과 리론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일관되여있으며 그이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온 사회의 공고한 단결의 기초를 이루고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은 그이를 태양으로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조선인민의 이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깨뜨릴수 없다. 》라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조선의 일심단결은 결코 저절로 이룩된것이 아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심단결을 중요한 정치철학으로 내세우시고 그를 최상의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수십년간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모든 로선과 정책의 출발점도 단결이고 펼치신 정치도 단결의 정치이며 인민들에게 심어주신 정신도 단결의 정신이였다. 》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철학, 일심단결의 철학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오시였다고 하면서 《일심단결하면 언제나 이긴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오늘 조선은 일심단결의 힘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물리치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람중심의 정치, 일심단결의 정치로 조선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라고 강조하였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배심, 미래에 대한 락관을 안고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을 만방에 높이 떨치며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기상, 선군조선의 참모습에 탄복하여 국제사회계가 터치는 찬양의 목소리는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군사적패권을 노린 위험한 망동

미국이 일본, 남조선, 오스트랄리아와의 《군사적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무력을 증강하려 하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에 미군을 장기주둔시키며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인디아양 등의 주요해상로들에 미군을 이동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들은 결코 무근거한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최근 미당국자들이 일본, 남조선, 오스트랄리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였다. 이들의 행각과정에 주요하게 론의된것은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사이의 《군사적협력》, 이 지역에서의 미군무력증강문제였다.

미국방장관 게이쯔는 미국이 아시아전역에서 미군병력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오스트랄리아군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스트랄리아와 보다 긴밀한 군사적협력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그루빠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잠재적적수》들을 제압하고 군사적지배권을 계속 유지강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책동이다.

새 세기에 들어선 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 군사력균형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중국, 인디아 등 여러 나라들이 신흥강국으로 등장하고있다. 이것은 21세기가 아시아태평양의 세기로 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

반대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배권이 크게 약화될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이에 불안을 느끼고있으며 따라서 군사적지배권을 계속 유지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급급하고있다. 그 주요한 하나가 바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 《군사적협력》을 강화하며 이 지역에서 미군무력을 증강하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백해무익하다.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랭전을 불러오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지난 세기 유럽지역에서의 첨예한 랭전은 세계에 막대한 부정적후과를 끼쳤다. 초대국들사이의 치렬한 군비경쟁으로 세계경제발전이 그만큼 떠졌고 많은 유럽사람들이 전쟁의 위험을 항시적으로 느끼며 살아왔다. 그 랭전속에서 막대한 리득을 본것은 미국이였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랭전구도를 형성하여 패권적지위를 차지하려 하고있다.

지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령토분쟁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예민한 문제들에 개입해나서면서 이 지역에 대한 무력증강과 군사적패권수립의 구실을 찾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아시아나라들이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와 지도를 열망하고있다. 》느니 뭐니 하고 력설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오스트랄리아, 일본, 남조선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동맹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는 동시에 여러 아시아나라들과의 《군사적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로씨야 등 《잠재적인 적국》들에 대한 군사적압력의 도수를 높이고 포위환형성을 다그치려 하고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압력과 내정간섭을 강화하는 경우 예측할수 없는 사태들이 빚어질수 있다. 이 지역 나라들사이에 분렬리간이 조성될수 있고 치렬한 군비경쟁이 벌어질수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국력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중국에 대해 커다란 경계심을 표시하면서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막아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외신들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미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국가》로 자처해나서면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운운하는것은 새로운 랭전을 몰아오고 군사적패권을 쥐려는 자기의 범죄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허구적인 《미싸일위협》설을 퍼뜨리는것도 이 지역에서의 자기의 무력증강과 군사적패권수립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이 로골화될수록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비상히 강화될것이다. 우리 나라뿐아니라 미국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다 그 길로 나가게 될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들의 평화수호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문제와 련관되여있기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리경수

라오스조선친선협회결성 20돐 기념집회 진행

라오스조선친선협회결성 20돐 기념집회가 16일 라오스국립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라오스인민혁명당, 건국전선, 국립종합대학, 라오스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라오스를 방문하고있는 평양시대표단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일군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라오스건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인 라오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뗑녀토는 라오스와 조선사이의 친선은 두 나라 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날을 따라 공고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할것이라고 확신한다.

라오스조선친선협회와 라오스인민을 대표하여 민족해방과 조국보위, 건설위업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하여준 조선당과 국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사이의 친선과 단결, 협조관계가 영원히 공고하기를 축원한다.

집회에 이어 라오스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에네르기자원문제에 대해 언급

모잠비끄대통령 아르만두 에밀리우 게부자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에네르기자원리용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 정부가 에네르기자원의 효과적리용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나가고있는데 대해 밝혔다.

모잠비끄는 앞으로 전력생산을 늘여 국내뿐아니라 지역나라들의 전력수요보장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부당한 책동 단죄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14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지배주의책동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중동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주의정책을 실현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지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미국의 더러운 야망의 희생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지역나라들이 단결하여 미국의 지배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외무상 마누체흐르 머타키가 1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테로전》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반테로전》이 이 나라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만을 초래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주재 베네수엘라대사가 18일 뗄레쑤르TV방송과의 회견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불안정을 조성하기 위한 미국의 부당한 행위를 단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의 극우익반동세력들을 미국회의에 참가시키고 그 무슨 지지놀음을 벌려놓은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하는 비렬한 행위로 락인하였다.

알바성원국들은 정부전복을 꾀하는 반동세력들을 미국이 비호해나서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의 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자연피해

— 꼴롬비아에서 9월부터 계속된 무더기비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3일현재 나라의 28개 주에서 사망자수가 117명으로 늘어나고 19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70만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볼리바르, 마그달레나, 꼬르도바주들에서는 강들이 넘어나 많은 농경지가 못쓰게 되였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메라피화산분출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이 나라 정부는 18일현재 화산분출로 인한 사망자수가 27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피해지역에서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자연피해방지노력

칠레의 꼬낌보에서 11일 있을수 있는 자연피해에 대처한 대피훈련이 진행되였다. 강한 지진과 해일발생을 가상한 이 훈련에는 약 4만명의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훈련과정에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에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였으며 사회단체성원들과 군인들이 주민들의 행동에 협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협조

중국과 남아프리카가 18일 에네르기, 무역, 은행업분야에서 호상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17일 볼리비아와 빠라과이는 두 나라사이의 국경지역에서 범죄와의 투쟁을 함께 벌려나갈데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최근 자체로 설계한 반항공체계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였다. 17일 이란군의 한 장령은 자기 나라가 모든 잠재력과 경험을 동원하여 국산제반항공체계를 성과적으로 시험하였다고 하면서 이란의 장거리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곧 공개될것이라고 밝혔다.

세이쉘의 항구도시

마약범죄 성행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12일 마약밀수행위가 드러나 3t이상의 마리후아나가 몰수되였다.

◎이딸리아의 깔라브리아지역에서 15일 10t의 코카인이 적발, 압수되였다.

◎뛰르끼예의 완주와 악사레이주에서 14일 마약밀수행위가 드러나 90.7kg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4명의 마약관련범죄자가 체포되였다.

이보다 앞서 11일 에디르네주에서도 70kg의 헤로인이 몰수되고 2명의 범죄자가 붙잡혔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상전의 음흉한 타산, 하수인의 가련한 처지

며칠전 미집권자가 요꼬하마에서 열리는 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을 행각하였다. 그는 회의시작에 앞서 일본집권자를 만나 회담을 진행하였다. 사실 이번 일미수뇌자회담은 일본이 1년전부터 기다려온 회담이였다.

지난해 11월에 있은 미일수뇌자회담에서 미집권자와 당시 일본수상이였던 하또야마는 미일동맹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데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다. 그에 따라 미일 두 나라는 올해 11월에 있게 될 미집권자의 일본행각시 1996년에 채택된 《미일안보공동선언》을 대신할 새로운 《선언》을 발표할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를 추진하여왔다. 그런데 미집권자의 일본행각을 보름 앞두고 미국이 갑자기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채택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0월 28일 기자단에 나타난 미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상급국장은 《오바마대통령은 일본방문시 아페크수뇌자회의에 전념할 생각이다. 간 나오또수상과 수뇌자회담은 진행하지만 〈공동선언〉은 발표하지 않을것이다. 》라고 꼬집어 말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당국자들은 얼굴이 시꺼매졌다. 한것은 새로운 《일미안보공동선언》채택을 통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내외에 다시금 《시위》하고 미국의 힘을 빌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공상이 한갖 망상으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일본이 새로운 《일미안보공동선언》채택을 보류한 미국의 립장을 돌려세워보려고 이래저래 손을 썼지만 일은 끝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은 현시점에서 볼 때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채택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자기의 결심을 철회하려 하지 않았던것이다.

이번 미일수뇌자회담에서 미집권자는 일본수상에게 몇마디 듣기 좋은 소리만 했을뿐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채택, 발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다. 결국 미집권자의 일본행각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큼직한 선물》을 받을것으로 기대했던 일본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고말았다.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한 일본이 상전으로부터 그런 랭대를 받은것은 응당한 일이다.

이번 일을 두고 한마디 해야 할것은 상전인 미국이 하수인인 일본을 다스리는 《솜씨》가 여간이 아니라는것이다.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란 없는 법이다. 미국이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채택을 보류하게 된데는 그들대로의 음흉한 타산이 있어서이다.

세계제패야망을 꿈꾸는 미집권세력은 일본을 단순히 저들에게 추종하는 하수인만으로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침략적대외정책을 집행하는 충실한 돌격대로 여기고있다. 그런데 지난해 일본에서 미국과의 《수평관계》를 떠드는 민주당정권이 들어앉으면서 상전의 기분을 잡치게 하는 일들이 련이어 벌어졌다. 이전 일본수상 하또야마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테로전》에 대한 《지원》의 명목밑에 10년가까이 인디아양에서 벌려온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급유활동을 중지시켰다. 게다가 미국이 불같이 독촉하고있는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는 아직까지 결착을 보지 못하고있는 상태이다.

지난 수십년간 일본을 다스려오면서 하수인에게서 그런 모욕을 받아본적이 없는 미국은 골이 날대로 났다.

그리하여 미국은 일본에 버릇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채택을 보류하기로 결심하였던것이다. 그것도 미일수뇌자회담이 박두한 시점에서 돌발적으로 그것을 결정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수뇌자들이 요꼬하마에 모인 기회에 새로운 《일미안보공동선언》발표로 《굳건한》 일미동맹관계를 국제사회앞에 보여주고 자국의 외교실력을 뽐내려던 일본집권자들의 타산은 빗나가고말았다. 꼴 좋게는 되였다.

하수인의 처지는 그렇게 되기마련이다.

파렴치한 《령유권문제》를 거들며 못되게 노는탓에 주변나라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있는 일본이 하내비같이 섬기던 미국상전에게서까지 랭대를 받았으니 처지가 여간 가긍하게 되지 않았다.

이번에 미집권자가 약 1시간가량 일본수상과 회담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합의된것은 없다.

다만 상전은 새로운 《일미안보공동선언》의 시급한 채택을 간청하는 하수인에게 래년쯤에 가서나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밀어버렸을뿐이다. 그것은 미국이 말썽많은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일본이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결심을 내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만약 일본이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미국의 요구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일미안보공동선언》채택문제가 매듭을 짓기 어렵게 될수 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일본이 반드시 미국의 의사대로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처리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최근 일본집권층안에서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미국의 요구대로 결착지으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시사하고있다.

지난 14일 일본수상 간 나오또는 요꼬하마시에서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오는 28일에 있게 될 오끼나와현지사선거후 현지에 찾아가 그곳 나고시 헤노꼬연안에로의 후덴마미군기지이설을 명기한 일미합의를 그대로 지키게 매듭을 지을 의향을 표시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채택을 보류한 미국의 음흉한 타산이 일본을 더욱 안절부절하게 만들고있다.

본사기자

결실없이 끝난 수뇌자회의

몇해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후과로 세계경제가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들어서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최근 그 해결을 위한 20개국 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은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기에 이번 20개국 수뇌자회의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기대와 관심은 컸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끝난 맹랑한 회합이였다고 할수 있다.

세계언론들은 이번 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평하였다.

《이번 20개국 수뇌자회의는 세계경제불균형문제에 대한 립장을 조정하지 못하였다. 회의에서 비록 〈선언〉이 채택되였다고는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는가에 대해서 똑똑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불균형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제시가 연기되였다. 미국이 경상수지흑자에 대한 한계를 정할데 대해 밀어붙이였지만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강력히 반대하였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

《세계 여러 나라 수뇌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완화된〉합의문을 이끌어내기는 하였지만 세상사람들에게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될것이라는 확신은 주지 못하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

이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이번 20개국 수뇌자회의는 참가국들사이의 의견상이, 미국의 독선적인 경제정책 등으로 하여 격론을 벌리다가 결실없이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은것은 뭐니뭐니해도 다른 나라들의 경제야 어떻게 되든 저들의 리익만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그릇된 립장과 태도때문이다.

이번 20개국 수뇌자회의를 한주일 앞둔 지난 4일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는 저들의 딸라발행력을 동원하여 6 000억US$의 자금을 시장에 추가로 투입하는 2차 량적완화조치를 취하였다.

이미 2008년에 세계경제위기가 터지자 미국은 무려 1조 7 000억US$의 자금을 시장에 들이밂으로써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저질렀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세계적범위에서 또다시 통화팽창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미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은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토대가 미약한 발전도상나라들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의 2차 량적완화조치발표후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비발치듯 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딸라를 망탕 찍어내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이러한 과잉류동성이 다른 나라들의 통화가치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수출경쟁력에 지장을 주고 외환시장도 타격받을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한편 그들은 미국의 량적완화조치가 자국경제에도 부정적영향을 줄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그들의 견해는 현재 미국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꺼리는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때문에 투자를 중단하고있으므로 자금이 추가로 공급된다고 하여도 투자와 일자리문제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것이라는것이다.

남을 희생시켜 저들의 살길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철면피한 리기적인 경제조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치고있다.

얼마전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미국이 딸라를 제한없이 찍어내는 한 세계경제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중국이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자본통제조치를 통하여 미국의 량적완화조치에 따르는 외부적충격을 완화시킬 《방화벽》을 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은 미국의 2차 량적완화조치가 세계적인 환률전쟁, 원자재가격상승, 거품경제를 산생시킬것이라고 하면서 은행기준리자률을 1%로 하는것을 18개월동안 동결하기 위한 대책검토에 착수하였다.

브라질, 인디아, 타이 등 수출주도형의 신흥경제국가지도자들은 미국의 그러한 조치가 자기 나라의 수출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것이라고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에 공동으로 보복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급해맞은 미집권자는 이번 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20개국 수뇌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경제가 강해야 세계에 리익이 된다. 》느니 뭐니 하며 저들이 취한 화폐발행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횡설수설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그러한 론리가 다른 나라들에 통할리 만무한것이다.

이번 20개국 수뇌자회의에 참가한 세계각국의 지도자들은 세계경제야 어떻게 되든 저들의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라는 관점에서 무모한 도박놀음을 계속 벌리고있는 미국에 로골적인 반감을 표시하였다.

결국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 등 여러 나라들에 자기의 화폐를 평가인상하도록 국제적압력을 가하려던 미집권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말았으며 미국의 영상은 흐려질대로 흐려졌다.

미국의 대중보도수단들까지도 《빈손으로 떠나오게 된 오바마》, 《20개국이 환률문제에서 오바마에게 퇴짜를》 등의 제목으로 비난글들을 실었으며 이번 20개국 수뇌자회의의 최대의 패배자는 미집권자라고 혹평하였다.

인류의 문명, 발전과 관계되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모든 나라들이 호상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합심하고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제 리속만 차리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고관점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넘겨씌우는 철면피한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대한다면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이번 20개국 수뇌자회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세계가 그렇게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서남일

ㄱ-01213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